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 2천억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과 생필품의 기초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경제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합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꼼꼼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내각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원팀이 되어 더 열심히 떨 것입니다.

지방정부에도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되었습니다.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주십시오.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되어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은 민생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님 모두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